

저 산 앞 정잇골[旌義縣] 예촌¹⁾ 양좌시집[梁座首宅]의 부모성제(父母兄弟) 동기간(同氣間) 없는 고독(孤獨)하게 지나는 양씨열리와 양씨아미가 이십데다.

누이동승, 양씨아미 훗 일곱살[單七歲] 때부터 신병(身病)들어 열다섯 나도록 금뉴울어져²⁾ 부모 기덕(父母之德)이 었어지고 금전(金錢)이 었어져, 아기씨 남대³⁾ 육대⁴⁾ 조죽대⁵⁾ 몰라가다 양씨아미는 놈의 벳지게⁶⁾가 벳지게 품팔일 허여 사느디. 양씨아미 열다섯 십오세(十五歲) 나난, 흐를날은 예촌⁷⁾을[禮村里] 안 어느 집안에 대통기⁷⁾ 소통기 기리에기 양산기 줄전나비 큰대를 비수와⁸⁾ 원성기제맞이⁹⁾ 큰곳을 흐느디. 대시왕연맛이가 근당(近當)하니, 아기씨는 남대 육대 조죽대 몰라가다 오랍성제간¹⁰⁾을 불러.

“오라바님, 나 귀에 굿소리가 쟁쟁흐오니 삼(三)동네에 어디 굿이나 흡네까?”

“으¹¹⁾ 아무 주당(住堂)에 굿허염서라.¹²⁾ 대시왕연맛이가 당허였저.”

그 말 들은 아기씨는 자유(自由)로 쓰지 못하는 몸천을 일으키명 오라바님 독지 우의¹³⁾ 둥둥이 드라져,¹⁴⁾

“날 업영 굿하는 디 구경(求景))이나 걸읍서.”¹⁵⁾

“굿구경을 가민 어찌흐겠느냐?”

오라바님이 누이동승 사는 정네¹⁶⁾를 보고 아니 올 수 었어져, 눈물을 흘려가명, 원(願)대로 등에 업어 굿하는 집안 금마답¹⁷⁾ 자리 우희¹⁸⁾ 가 앓졌더니, 아기씨가 흐는 말이,

“오라바님, 어떻흐난 공싯상¹⁹⁾엿 떡이나 흐나 먹고푸우다.”

이 말 들은 양씨열리는 ‘어찌 심방[神房] 앞의 강 이 말을 흐리.’ 그러나 공싯상엿 떡을 먹으면 살아지겠다 하니 흘 수 웃이 몸받은 신의성방(神의刑房) 앞의 가 속실(事實)대로 말을 흐니, 공싯상엿 떡을 누리와,

“어느 아기씨 뉘옵네까?”

신의성방이 혼번을 쳐다보더니,

“저 아기는 남대 육대 모른 아기로구나. 저 아기 스주팔조(四柱八字)는 때와 혼(限)이 잇어 원천강(袁天綱)을²⁰⁾ 그르치고 스주(四柱)를 그르칠 아기로구나.”

1) 예촌 : 남원면 신·하례리(南元面 新·下禮里).

2) 금뉴울어져 : 이울어. 곧 만성병(慢性病)으로 몸이 말라들어. ‘금-’은 접두사.

3) 남대 : 나뭇대.

4) 육대 : 대의 일종.

5) 조죽대 : 자주(紫朱)대. ‘남대 육대 조죽대 몰르다’함은 대막대기처럼 몸이 마르다의 뜻.

6) 벳지게 : 고기를 저다 파는 지게.

7) 대통기 : 이하 큰굿할 때 마당에 세우는 큰대에 달아 매는 기류(旗類).

8) 비수와 : 세워의 뜻.

9) 원성기제맞이 : 원성기도제맞이. 굿을 일컫는 말.

10) 오랍성제간 : 오라비 형제간. 여기서는 오라버님을 뜻함.

11) 으 : 응. 손아랫 사람의 말에 대답하는 소리.

12) 굿허염서라 : 굿하고 있더라.

13) 독지 우의 : 어깨 위에.

14) 드라져 : 매달려.

15) 걸읍서 : 걸으십시오. 가십시오의 뜻.

16) 정네 : 정황(情況).

17) 금마답 : 마당을 일컫는 말.

18) 자리 우희 : 굿하는 신자리 위에의 뜻.

19) 공싯상 : 공신상(恭神床).

20) 원천강(袁天綱) : 당(唐)의 점술가(占術家). 여기서는 팔자(八字)라는 뜻으로 쓴 것. ‘팔자 그르치다. 사주 그르치다’란 무당

아기씨 공깃상엿 떡을 꿀맛?찌 붉은 입술 벌거 한 두적을 그차 먹으니 가슴으로 진 솜비²¹⁾ 즙른 솜빚 소리가 나고 아기씨 눈으로 눈물이 비 지듯 져가니, 신의성방(神의刑房)이 신소무(神小巫)보고 말을 하되,

“울뽕을²²⁾ 심으라.²³⁾ 옥장궐²⁴⁾ 심으라. 아기씨 신가심이나²⁵⁾ 올려주저.”²⁶⁾

신의성방이 ‘오늘 오늘 오늘이여, 날도 조아 오늘이여.’ 놀래[歌]를 불러가니 발새²⁷⁾도 못 노리던²⁸⁾ 아기씨가 양단독지[兩端肩] 추겨들어 얼음[氷] ?튼 손짚을²⁹⁾ 내여놔 이삼스월(二三四月) 국순³⁰⁾ 벌기듯 벌려 제석공 신자리[帝釋宮神席]에서³¹⁾ 신가심을 풀리며 춤을 추어 노념하는 것이, 아기씨 비새 울듯 울며, 아기씨 가슴[胸] 안에 열시완전(十王前)에와 팔즈(八字) 굶던 신공시 옛 선성님³²⁾ 앞질을³³⁾ 발리울 듯.³⁴⁾

아기씨가 오라바님 등에 드라져,

“어서 집으로 급서.”³⁵⁾

아기씨를 업고 와 양씨아미 자리 우의 눅지니,³⁶⁾ 동승(同生)이 말을 하되,

“오라바님, 나 전승 팔즈(前生八字)는 이 오늘로 이 내 팔즈스주(八字四柱)를 좇아진 것 ?뜨우다.”³⁷⁾

글지 후로³⁸⁾ 아기씨가 ‘아무 날 아무 시에 아무 아무 방향(方向)으로 아무런 주당(住堂)으로 체스(差使)가 느려사겠다. 아무 방향으로 불이 나겠다.’ 하민 아기씨 입술로 곱는 듯³⁹⁾ 하야 그 날 이 돌아오민 약속(約束)허연 놔둔 것?찌⁴⁰⁾ 그 방향으로 체스(差使)가 느려사 사름이 죽곡, 하늘과 땅 일을 다 알게 돼여집데다.

이 때, 정윳골[旌義縣] 예촌(禮村) 양덕(梁宅)에 천하거부(天下巨富)로 잘 살아지나, 단독즈(單獨子) 아들 스경(死境)에 달(達)허여 죽게 돼여가난 ‘양씨아미가 하늘일 땅일을 다 알아 지난다 하니 문복(問卜)이나 허여보저.’

양씨아미 앞의 문복을 하니,

“신의아이⁴¹⁾ 쳇질을⁴²⁾ 발리와⁴³⁾ 원성기제맞이를 허여봅서.”

쳇짐[初占] 설유를⁴⁴⁾ 하고 쳇굿 설유를 허여 굿을 하자니, 일천기덕도⁴⁵⁾ 엇어지고 이복입성

이 된다는 뜻.

21) 솜비 : 해녀가 작업할 때 숨을 내쉬는 소리. 여기서는 한숨의 뜻으로 쓴 것.

22) 울뽕 : 북(鼓)을 일컫는 말.

23) 심으라 : 잡아라. 북을 잡아 치라는 뜻.

24) 옥장궐 : 장고(杖鼓)를.

25) 신가심이나 : 가슴. ‘신-’은 조운음(調韻音).

26) 올려주저 : 열어 주고자. 열어주자.

27) 발새 : 한 발 사이. 한 발자국.

28) 노리던 : 움직이던.

29) 손짚을 : 손길을.

30) 국순 : 박의 순(荀).

31) 제석공 신자리(帝釋宮神席) : 전제석궁에 굿을 할 때 깔아 놓은 돛자리.

32) 옛 선성님 : 무조(巫祖)와 죽은 무당 선생.

33) 앞질을 : 앞길을.

34) 발리울 듯 : 바르게 할 듯.

35) 급서 : 걸으십시오. 가십시오의 뜻.

36) 눅지니 : 눅히니.

37) ?뜨우다 : 같습니다.

38) 글지 후로 : 그 후로.

39) 곱는 듯 : 말하듯.

40) 놔둔 것?찌 : 놓아둔 것같이.

41) 신의 아이 : 신의 아이 곧 심방의 뜻.

42) 쳇질을 : 첫길을.

43) 발리와 : 바르게 하여. ‘쳇질을 발리운다’함은 처음 굿함을 이루어지게 하여의 뜻.

44) 설유를 : 설시(設始)의 뜻.

도⁴⁶⁾ 엇어져 탄식(歎息)이 될 때, 양씨아미 보고,

“어서 너의 첫질을 발라주던 신의성방(神의刑房)안티 묵은 연물이나⁴⁷⁾ 이복입성이나 빌어당 굿을 헤염시민⁴⁸⁾ 내 바빠 전배독선[全船獨船]을 허영 윤민⁴⁹⁾ 객지(客地)에 강 다 준비(準備)하여 오거들랑⁵⁰⁾ 그걸로 굿을 하라.”

양씨아미, 오라바님 굳는 대로 신공시 첫질을 발랐던⁵¹⁾ 신의성방(神의刑房)의 연물을 빌어 굿을 하는데, 초감제가 넘어들어, 초신맛이 초·이공연맛이 넘어들어 대시왕연맛이가 당하여, 아기씨가 시왕(十王)을 발아나고 발아들다⁵²⁾ 첫짐[初占]⁵³⁾ 도맹문하니, 양씨열이 설운 오라바님이 전배독선[全船獨船]해야 육민으로 나가다 미리예기⁵⁴⁾ 절고개⁵⁵⁾에 파산(破産)이 되어 수중고혼(水中孤魂)이 된 듯한다. 아기씨는 다시 건화?찌⁵⁶⁾ 각 복색(服色)을 다 좇어 입고 삼석을⁵⁷⁾ 지울려⁵⁸⁾ 예촌(禮村里) 열룬이[溫坪里]⁵⁹⁾ 혼연개[婚姻浦]로 높은 영장⁶⁰⁾ 치돌아 올라사,

“설운 오라바님아. 이 동생(同生) 하나 살리젠⁶¹⁾ 전배독선[全船獨船]하면 육민으로 나가다가 수중고혼(水中孤魂)이 되었구나. 영 돼민⁶²⁾ 난들 살앙 무엇하리.”

아기씨가 차가운 뱀오리브름 속에 뛰어들어 진 솜비⁶³⁾ 즈른 솜비 한번 웃이⁶⁴⁾ 미리예기삼성제저 절고개 요왕 수중국(龍王水中國)으로 그리운 오랍성제간을 만나보저, 감태(甘苔)?뜯 머리 만주산 허터놓고⁶⁵⁾ 수중길[水中路]을 들어가 수중고혼(水中孤魂)이 돼데다.

아기씨, 그 때에, 스신 요왕국(四神龍王國) 앞으로 조은 몸천[肉身] 지바찌⁶⁶⁾ 전싱(前生) 굿던 몸 예촌(禮村) 땅 스혜요왕(四海龍王) 용신(龍神)으로 수중길[水中路]로 들어가고 예촌당 혼연개[婚姻浦] 이 알로⁶⁷⁾ 예촌 양덕(禮村梁氏) 마은오덥(四十八) 상단골(上丹骨)을 무어 인정 스정(人情事情) 받아웁고, 일년(一年) 한번 삼진정월(三辰正月) 신과세(新過歲)로 양씨열이신당(一神堂)으로 제민공연⁶⁸⁾ 받고, 유월(六月) 물기리듯⁶⁹⁾ 하던 양씨아미 요왕 수중고혼(龍王水中孤魂)이 돼야 가는 선(船) 오는 선 차지해야, 설운 오라바님 제민공연 상을 받쟁하민⁷⁰⁾ 요왕몸기⁷¹⁾를 비수와⁷²⁾

45) 일천기덕 : 일천기덕(一千器德). 모든 무구(巫具)를 뜻함.

46) 이복입성 : 의복.

47) 연물 : 무악기(巫樂器)를 일컫는 말.

48) 헤염시민 : 하고 있으면.

49) 윤민 : 육지(本土)의 뜻.

50) 오거들랑 : 오거든.

51) 신공시 첫질을 발랐던 : 공신(恭神) 첫길을 바르게 하던. 곧 심방이 되게 해 주던. 심방의 첫(굿하는) 길을 이루어지게 해주던의 뜻.

52) 발아나고 발아들다 : ‘시왕을 발아나고 발아들다’함은 시왕의 하강로인 시왕다리(무명)을 타 나가고 타 들고 하다. 곧 그 다리 위를 춤추며 넘어가고 오고 하다가의 뜻.

53) 첫짐(初占) : 첫번의 산판점을 침의 뜻.

54) 미리예기 : 미리예기 삼성제와 같음. 물결을 일컫는 말.

55) 절고개 : 물결고개(굽이).

56) 건화?찌 : 미상. 매우 바쁘게의 뜻인 듯. 건화(乾火)?

57) 삼석을 : 삼석(三席). 여기서는 무악기 소리를 세 차례 울림의 뜻.

58) 지울려 : 울려. ‘지-’는 접두사.

59) 열룬이(溫坪里) : 성산면 온평리(城山面溫坪里).

60) 영장 : 남떠러지.

61) 살리젠 : 살리자고. 살리려고.

62) 돼민 : 이렇게 되면.

63) 솜비 : 긴 솜비소리.

64) 웃이 : 없이.

65) 만주산 허터놓고 : 이리 저리 마구 흩어놓고의 뜻.

66) 지바찌 : 바쳐. ‘지-’는 접두사.

67) 알로 : 밑으로. 아래로.

68) 제민공연 : 제민공연(諸民供宴), 제의(祭儀), 축원(祝願)의 뜻.

69) 물기리듯 : 물을 그리워하듯.

70) 받쟁하민 : 받자고 하면.

71) 요왕몸기 : 요왕의 몸.

72) 비수 : 비수.

양씨열이 좌정하던 양씨일월(梁氏日月) 본향(本鄉)으로 우망(爲望)하는 조상(祖上)입니다.

울랑국 범천왕 궁전궁납⁷³⁾ 소리로 일천간장(一千肝臟) 풀리웁고 혼 몸천[肉身]은 요왕국(龍王國)으로 도올리고 혼 몸천은 양씨열 뒤에 요왕 수중고혼(龍王水中孤魂)으로, 삼명일(三名日) 기일 제스(忌日祭祀) 때는 상단골(上丹骨)에 상(床)을 받던 조상(祖上)이 됩네다.

- 濟州市 龍潭洞 男巫 安仕仁 口誦

저 산 앞 정의고을 예촌 양좌수집에 부모형제 동기간이 없이 고독하게 지내는 양씨열이와 양씨아미가 있습니다.

누이동생인 양씨아미가 일곱살 때부터 신병이 들어 열다섯 되도록 몸이 말라들어 갑니다. 부모의 덕이 없어지고 금전이 없어지자, 아기씨는 대막대기처럼 마른 몸으로 고기를 저다 파는 일을 도와주는 품팔이를 하며 삽니다. 양씨아미가 열다섯 15세 되는 해, 하루는 예촌마을 안 어느 집 안에서 대통기 소통기 기리에기 양산기 줄전나비가 달린 큰대를 세워놓고 원성기제맞이 큰굿을 하는데, 시왕맞이 차례가 되니, 아기씨는 대막대기 같이 마른 몸에 오빠를 불러,

“오라버님, 나 귀에 굿소리가 쟁쟁하는데, 동네에 어디 굿이나 하고 있습니까?”

“응, 아무 집안에서 굿을 하고 있더라. 이제 시왕맞이 차례가 되었다.”

그 말을 들은 아기씨는 자유로 쓰지 못하는 몸을 일으키고 오빠의 어깨 위에 단단히 매달려,

“나를 업고 굿하는 데 구경이나 가십시오.”

“굿구경을 가면 어찌하겠느냐?”

오빠는 누이동생이 사는 정황을 보고 울지 않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면서 소원대로 등에 업고 굿하는 집안 마당 신자리 위에 가 앉혔더니, 양씨아미가 하는 말이,

“오라버님, 어떤 일인지 공신상의 떡을 하나 먹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양씨열이는 ‘어찌 심방에게 가서 이 말을 하리.’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공신상의 떡을 먹으면 살 것 같다 하니, 할 수 없이 신을 섬기는 심방에게 가 사실대로 말을 한다. 심방은 공신상의 떡을 내려,

“어느 아기씨입니까?”

하고, 한번을 쳐다보더니,

“저 대막대기같이 바싹 마른 아기로구나. 저 아기 사주팔자는 때와 한이 있어 팔자를 그르치고 사주를 그르쳐 심방이 되어야 할 아기로구나.”

하고 떡을 줍니다. 아기씨가 공신상의 떡을 꿀맛같이 붉은 입술을 벌려 한두 입을 끊어 먹으니, 가슴으로 긴 한숨 짧은 한숨 소리가 나고, 아기씨 눈에서는 비 내리듯 눈물이 떨어져 갑니다. 심방이 신소무보고 말을 하되,

“복을 잡아라, 장고를 잡아라. 아기씨 가슴이나 열어주자.”

심방이 ‘오늘 오늘 오늘이여, 날도 좋아 오늘이여.’ 하며 노래를 불렀더니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던 양씨아미가 두 어깨를 추켜들고 얼음 같은 손길을 내 놓고 이삼사월 박의 손 벌리듯 벌려

71) 요왕몸기 : 요왕맞이굿 때에 세우는 기.

72) 비수와 : 세워의 뜻.

73) 울랑국 범천왕 궁전궁납 : 무악기를 일컫는 말.

제석공 신자리에서 가슴을 풀며 춤을 추어 놀다. 양씨아미가 비새 울듯 울면서, 자신의 가슴 안에 시왕전과 팔자 굿던 옛 심방 선생님들이 심방이 되는 길을 인도해 주는 듯이 한참 춤을 춰다. 그리고는 양씨아미가 오빠의 등에 매달려,

“어서 집으로 가십시다.”

오빠는 동생 양씨아미를 업고 와 항상 누던 자리 위에 눕히니, 동생이 말을 하되,

“오라버님, 나의 전생 팔자는 무엇인가 했는데, 오늘로 나의 팔자사주를 찾아진 것 같습니다. 심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그후로 아기씨가 ‘아무 날 아무 시에 아무 아무 방향으로 어느 집안에 차사가 내려서겠다. 아무 방향으로 불이 나겠다.’ 하면 아기씨 입술로 말한 것처럼 그날이 되면 약속해 둔 것같이 그 방향으로 차사가 내려서서 사람이 죽고, 하늘과 땅 일을 다 알게 된다.

이때, 정의골 예촌 양댁이 천하거부로 잘 살고 있으나, 외아들이 사경에 달하여 죽게 되자,

“양씨아미가 하늘일 땅일을 다 안다 하니 문복이나 해 보자.”

하고, 양씨아미에게 가 문복을 하니,

“신의 아이에게 첫굿을 시켜 원성기제맞이 굿을 해 보십시오.”

첫 점을 치기 위한 설비를 차리고 첫 굿을 하기 위한 설비를 차려 굿을 하려 하니, 무악기도 없고 의복도 없어서 탄식하고 있을 때, 양씨열이가 보고,

“어서 너의 첫길을 인도해 주던 심방에게 묵은 악기와 의복을 빌어다가 굿을 하고 있으면 내가 얼른 배를 타 육지에 가서 무구를 다 준비하고 오거든 그것으로 굿을 하라.”

양씨아미는 오라버님이 말하는 대로 심방의 첫길을 인도해 주던 심방의 악기를 빌어 굿을 하는데, 초감제가 넘어들어 초신맞이 하고, 초·이공맞이를 넘어들어 시왕맞이가 당하여 아기씨가 시왕다리 위를 춤추며 넘어가고 넘어오고 하다가 첫번 산판점을 쳐 보니, 불쌍한 양씨열이 오라버님이 전배독선하여 육지로 나가다 물결에 배가 파산하여 수중고혼이 된 듯합니다. 아기씨는 얼른 서둘러 각 복색을 다 차려 입고, 무악기로 세번을 쳐 올려 예촌 열룬이의 혼연개로 높은 낭떠러지를 치달아 올라서서,

“불쌍한 오라버님아. 이 동생 하나 살리려고 전배독선하여 육지로 나가다가 수중고혼이 되었구나. 이렇게 되면 난들 살아 무엇하리.”

양씨아미는 그리운 오빠를 만나보려고 차가운 회오리바람 속에 뛰어들어, 긴 한숨 짧은 한숨 한번 없이 물결 고개 속 용왕 수중궁으로 감태 같은 머리를 마구 흠어놓고 수중 길로 들어가 수중고혼이 됩니다.

양씨아미는 그 때, 사신용왕궁에 좋은 몸을 바치고, 전생 굿던 몸을 예촌 땅 사해용왕 용신을 위해 수중길로 들어가서 예촌 땅 혼연개 아래 사는 예촌 양씨 댁을 마흔여덟 상단골로 맺어 인정 사정을 받습니다. 일년에 한번 정월에 신과세로 양씨열이 신당에서 축원을 받고, 유월에는 물을 그리워하듯 하던 양씨아미가 용궁에서 수중고혼이 되어, 가는 배 오는 배를 차지하여 불쌍한 오빠를 축원하며 상을 받아 올립니다. 불쌍한 오빠 양씨열이가 동생이 축원드리는 상을 받으려 하면 용왕몸기를 세워, 양씨열이가 좌정하던 양씨일월을 본향으로 위하는 조상입니다.

한 몸은 용왕궁에 바치고 한 몸은 양씨열이를 뒤이어 용궁의 수중고혼이 되어 무악기 소리로 일천간장이 풀리고, 삼명일 기일 제사 때는 상단골에게 상을 받던 조상이 됩니다.